



김영성 작가가 지난 2013년 촬영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현장.



눈 내리는 공사현장을 담은 '존재를 넘어서' 시리즈.

### 뮤지컬 보고 샌드 아트 즐기고 리틀·갯+3D 오감만족 체험전 2월 21일까지 DJ센터 1전시장



뮤지컬과 체험전이 어우러진 행사가 광주를 찾는다. 내년 2월2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 전시장에서는 '뮤지컬 리틀·갯+3D 오감만족 체험전'이 열린다. 뮤지컬 '리틀·갯'은 난타, 마술, 비보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고양이들의 꿈은 배고픔이 없는 행복의 도시 '갯츠 타운'으로 가는 것이다. 고양이들은 그 곳으로 가는 단 한장의 티켓을 얻기 위해 장기자랑을 한다. 신나는 음악과 고양이 의상, 배우들의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3D 오감만족 체험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참가자가 색깔한 색갈 그대로 물고기가 3D 홀로그램으로 나타나는 '3D 아쿠아리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상의 캐릭터를 만나는 '공룡 체험관', 모래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샌드 아트', 가상 현실 속으로 들어가 즐기는 체험을 하는 '크로마키 체험관', '어린이 교통 안전체험 레이싱', 로봇 바이크, 대형 비누방울 놀이 등이 눈길을 끈다. 뮤지컬 공연 시간은 오전 11시, 오후 1시30분, 오후 4시 세차례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문의 1688-38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전당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남기고 싶었다”



6년의 공사현장 기록한 사진작가 김영성씨

4개월 끈질긴 간청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얻어내  
일주일에 2~3일은 하루종일 공사현장서 보내  
내년부터 전시회 열고 책 만들어 작품 일반 공개

“문화전당 사진 촬영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라는 소명 의식이 있었습니다.”

김영성(51) 사진작가는 지난 11월25일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을 바라보는 기분이 남다르다. 공사가 진행된 지난 6년은 그에게 카메라, 문화전당 공사현장, 작업실 등 세단어로 요약되는 시간이었다. 작업에 전념하기 위해 집안의 눈총을 무릅쓰고 대학 출강까지 그만뒀었다.

27일 김 작가를 만나 카메라를 든 사연과 문화전당 기록이 어떤 의미인지 들어봤다.

“20세기 초 프랑스 파리에 으젠느 왓체(1857~1927)라는 사진가가 있었어요. 당시는 생소했던 길거리 스냅샷을 찍는 사람이었죠. 그는 사진을 찍어 화가들에게 스케치용으로 팔았어요. 상업적 성격 때문에 당연히 작품성은 인정 못 받았죠. 하지만 1930년대 파리는 정부 주도 도시계획으로 인해 모습이 크게 바뀌었어요. 왓체의 사진은 거리의 옛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받으며 예술성까지 인정받았죠.”

김 작가는 사진작가라면 당연히 역사적 기록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화전당을 찍은 것도 이런 생각에서다. 그는 5·18의 마지막 항거지였던 옛 전남도청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봤다. 옛 도청에 문화전당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가 사진촬영을 제안했다.

“지난 2010년 공사가 시작되기 전 포트폴리오를 들고 서울에 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찾아갔어요. 전당 공사현장을 촬영하고 싶으니 허가를 내달라는 요청이었죠. 물론 쉽지 않았어요. 다른 사진가들도 많은데 저에게만 허가를 내준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나봐요. 약 4개월을 찾아다니던 끝에 간신히 허가를 받았습시다.”



철제 구조물을 소재로 한 '존재의 사유' 시리즈.



기초공사를 찍은 '존재, 그리고 공간' 시리즈.

이런 노력 끝에 김씨는 사진가로서 유일하게 건물의 형태가 갖추어지기까지의 모습을 세세하게 찍을 수 있었다. 지난 6년간 일주일에 2~3일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공사현장에서 살았다. 공사 관계자들은 행여나 안좋은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협조적인 분위기였다. 갖은 고생 끝에 찍은 사진은 수십만장. 컴퓨터 용량으로는 4TB(테라 바이트)에 이른다.

그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크게 세가지 주제를 정했다. '존재, 그리고 공간', '존재의 사유', '존재를 넘어서'다.

'존재, 그리고 공간'은 작가의 주관적 시각이 절제된 작품들이다. 과거 도청 모습부터 전당 기초공사, 자재가 운반되는 과정, 골조가 들어서는 건물의 형태가 갖추어지기까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존재의 사유'는 조성 과정의 사진들을 컴퓨터로 재가공한 이미지다. 애니메이션 영화 '공각기동대'에서 영감을 받아 전당의 모습을 욕망이 가득찬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존 다큐멘터리 사진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시도했다. 마지막 '존재를 넘어서'는 지금까지의 작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담았다. 수많은 이미지들을 거쳐 초현실적으로 표현했다. 딱딱하고 거친 공사장 문화를 사진예술의 관점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다.

“예전에는 고인돌, 담양 가사문학관 등을 소재로 작품활동을 했어요. 외국에서 몇차례 초대전을 가졌는데 한국 문화에 대해 꽤 호응을 받은 편이었죠. 문화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어요.”

김씨는 아직까지 작품들을 대중에게 공개한 적은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시회 등을 열어 광주와 문화전당을 알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광주, 서울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에요. 이번 작업과 관련해 책도 만들 생각입니다. 박성완이라는 젊은 작가도 그림 소재로 전당 공사현장을 삼았다고 들었어요. 연락해서 같이 전시회를 열고 제안할 생각이에요. 문화전당은 우리 역사 속에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앞으로도 광주시민들에게 귀중한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함평 출신인 김씨는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지난 미국 휴스턴 박물관(2009), 산타바바라 박물관(2010)에서 고인돌을 주제로 초대전을 가졌다. 현재 전주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미협, 한국사진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남종화 명맥 박영희 개인전

1월28일까지 전남옥과미술관



'가을 계곡'

남종화의 맥을 잇고 있는 박영희 작가가 2016년 1월28일까지 도립 전남옥과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박 작가는 '아산류의 먹산수'를 완성한 남종화의 거장 고(故)아산 조방원 화백의 제자다.

이번 전시에서 그녀는 자연에 대한 동경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운무'나 '고향생각' 등을 통해 세속을 떠나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여유를 전해주고 있다.

박씨는 “침술의 나이에 아직도 좋은 그림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하지만 내 그림을 만나는 분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느낀다면 그 그림이 좋은 그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안 출신인 박씨는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황조근정훈장(2009)을 받았고 한국한국화대전 특선 및 입선, 일본 전일전 수작(秀作),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1-363-727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